

하나 둘 셋~ 둘 둘 셋~
강북장애인복지관 댄스교실



“발을 이렇게 한 번 댄어주세요. 잘 하셨습니다.”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에어로빅실에서는 강북 장애인복지관(관장 명궁) 장애인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복지관에서 마련한 ‘살맛나는 댄스교실’ 프로그램 덕분이다.
언제나 위축됐던 장애인들이 자신감을 찾을 수 있도록 강북장애인복지관이 5월 26일 개설한 ‘살맛나는 댄스교실’은 매주 목요일 오후 진행돼 장애인들에게 생활의 활력을 되찾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02)989-4215 김강진 기자

2005년 나눔 캠페인 어떻게 진행되나

본사는 지난해에 이어 2005년에도 연중캠페인 ‘나눔의 손잡기 운동’을 펼친다.
한국사회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근접하며, 나눔과 봉사가 사회의 아젠다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사는 부처님의 동체대비정신을 바탕으로 함께 나누고 모두가 잘사는 세상이 되도록 나눔운동에 한층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

♥ **나눔의 법보시 운동 전개** 군부대나 교도소, 대학, 어린이 청소년 법회가 열리는 사찰이나 복지시설 등에 신문을 보내는 법보시 운동을 전개한다. 또 농어촌이나 낙도 그리고 불우 이웃들에게 신문을 보내 마음의 풍요를 주는 운동을 전개한다. 월 1천원 1구좌로 보시처를 지정해 신청하시면 된다.

♥ **나눔단체를 소개합니다** 나눔단체를 탐방하고, 주요 사업으로 벌이는 봉사 현장을 소개합니다. 또 각 단체가 소개하는 후원이 필요한 곳도 제보 바랍니다.

♥ **나눔의 성금 모으기** 나눔성금 모금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합니다. ‘소년소녀가장 돕기 기금’ ‘독거노인 우유보내기 기금’ ‘시설아동 지원기금’ ‘장애우 돕기 기금’ 등에 전달할 기금은 본사 나눔의 손잡기 계좌(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로 접수하면 됩니다. 또 전화 한통화로 3천원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본사 ARS(060-700-1080)를 통해 성금을 기탁해주세요.

♥ **협력종단 및 단체 지원사업** 올해 협력 종단 및 단체들과도 지속적인 지원사업을 전개합니다. 또 대원정사 및 우리는 선우와 나눔의 등달기 행사를 공동개최합니다.

♥ **어려운 이웃 및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연 소개**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또 전국의 거의 모든 사찰에서 벌이는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연도 제보해주세요.

대원정사 ‘민수돕기’ 나섰다

1차 치료비 500만원 전달...내달 서울·부산서 후원법회

본사 ‘민수돕기 캠페인’에 동참

“우리 아이를 위해 이렇게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수와 같은 어린 아이들이 병으로 고통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작은 정성을 모았습시다.”

대원정사·대원불교대학이 본사가 벌이고 있는 민수 돕기 운동(현대불교 529호 8면 기사 참고)에 동참했다. 부산 대원정사 양재형 법사가 5월 30일 부산 대학병원에서 골수성 백혈병으로 입원 중인 김민수(4) 어린이에게 1차 치료비 500만 원을 전달한 것.

이날 전달된 성금은 불기 2549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대원정사상임법사 김범준과 대원불교대학 신도, 학생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이웃을 고통을 함께 나누는 진정한 불자가 되자는 취지에서 ‘자비나눔실천 생명 등 달기’ 행사를 벌여 조성된 것이다.

이날 부산대학병원 소아암 병동에서 가진 전달식에는 양재형 부산 대원정사 법사, 대원정사 신무원 신도회장, 윤분자 총무, 정성자 재무 등 신도들이 참석해 서울과 부산에서 봉족 기간 20여 일 동안 모금된 성금과 신도들의 마음까지 함께 전달해 훈훈함을 더했다.

이날 참석된 신도들은 면역이 약해진



부산 대원정사 양재형 상임법사(사진 맨 왼쪽)가 민수 부모에게 대원정사·대원불교대학에서 모금한 500만원을 전달하고 있다.

민수를 가까이서 만나지는 못했지만 발치에서 민수에게 인사를 건넸고 민수도 손을 흔들며 웃어보였다.

신무원 회장은 “치료비가 급하게 필요하다는 소식을 법사님께 들었을 때는 상태가 좋지 않아 걱정이었는데 민수가 손을 흔들고 대답도 해서 마음이 놓인다”며 “관음제일에 대원정사 전 신도들의 마음을 모아 민수의 완쾌를 기원하는 기도를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양재형 법사 또한 “꺼져가는 한 생명을 살리는 실천이야말로 진정한 불자의 대사회적 의무이고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가르침을 제대로 펴는 것이야

니겠느냐”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민수가 건강해질 때까지 힘을 보태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원정사·대원불교대학은 7월 한 달 동안 서울과 부산에서 ‘민수돕기 후원법회’를 병행할 계획이다.

대원정사·대원불교대학은 한 생명을 살리는 적극적인 보시 실천이 대원정사 신도들과 학생들의 신행과 결속력 강화에도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자비나눔 실천 사업을 더욱 확대,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051)583-7811 글·사진/부산·천미희 기자

도와주세요 생명나눔실천본부 6월의 환우 ‘IgA 사구체신염’ 앓는 유현혜씨

“딸에게 좋은 엄마가 되고 싶은데 몸이 아파서...”

생명나눔실천본부(대표이사 법장)가 6월의 환우로 선정한 유현혜(27·사진)씨는 자신의 아픈 몸 때문에 딸을 볼 수 없는 현실이 서글프기만 하다.

2002년 3월 신장염의 일종인 ‘IgA 사구체신염’으로 진단받고 충남대병원에서 외래치료 중인 유씨는 현재 만성신부전증 이행단계에 있다. 만성

신부전이 될 경우에는 혈액투석과 신장식이수술이 불가피해 아이와 함께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

어릴 때부터 부모의 이혼으로 외롭게 살아온 이씨는 하루 빨리 건강을 되찾고자 ‘IgA 사구체신염’의 합병증인 빈혈과 당뇨 앞에서도 꾀없이 버티고 있다.

문제는 치료비.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이 자체적인 생활비 조달마저 힘든 형편인 유씨에게 치료비는 너무나 큰 부담이다.

딸을 위해 이를 악물고 버티는 유씨에게 불자들의 따뜻한 손길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 (02)734-8060 김강진 기자

나눔단체-릴레이 탐방

조계종사회복지재단 감로회 보살들

목욕·식사 수발 손발이 ‘척척’

서울 시내에 이런 곳이 있다. 은평구 진관동의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인덕노인복지회관(관장 도광)의 풍광을 처음 대한 이들은 이렇게 반응한다.

등산객이 줄을 이은 6월 8일 아침, 수요일마다 인덕노인복지회관을 찾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감로회(탐장 노옥순) 7명의 식구들은 등산로 대신 길쭉을 옮긴다.

감로회 보살들이 도착하자마자 하는 일은 노인복지회관 어르신들의 목욕을 돕는 것이다. 체력 소모가 많은 봉사지만 보살들은 묵묵히 해낸다. 그렇지만 이들도 처음 봉사 할 때는

치매가 있는 어르신들이 욕실에서 대변을 보기도 하고 활귀고 발로 차는 통에 무척이나 힘든 시간을 보냈다. 복지회관에서 보낸 8년의 세월은 이제 그런 일을 웃어넘기게 만들어놓았는지 지금은 보살들의 얼굴에 여유가 넘친다.

목욕봉사만도 힘들 법한데 감로회는 11시 30분부터 어르신들의 식사

수발까지 든다. 복지회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준비한 영양이 있는 식사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드시기 할까, 고민이다. 영숙(가명·75) 할머니처럼 입조차 발리지 않는 어르신들을 돌볼 때면 문득 ‘이게 도둑이 것이냐’라는 생각도 든다.

이런 힘든 일중에서도 감로회 보살들이 봉사할 수 없는 이유는 가끔 정신이 돌아오는 치매 어르신들이 맑은 눈으로 “고맙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어르신들과의 만남과 이별에 익숙해졌지만 노옥순(67) 탐장에 복지회관 성례(가명·73) 할머니의 처지는 너무 가슴 아프다.

“그 할머니랑 분위기가 좋은 찻집 가서 차 한 잔 마시자 그랬는데, 지난봄부터 몸이 안 좋으시더니 이전 말도 잘 못하시네요. 할머니가 빨리 나오셔야 할 텐데, 약속 지키려면...”

노 탐장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함께 안타까워하는 탐원들의 따스한 마음, 그것이 감로회가 가진 가장 큰 힘이다. 김강진 기자



체력적으로는 누구나 힘든 봉사. 그러나 감로회 보살들은 인덕노인복지회관에서 7년 넘게 어르신 목욕 및 식사수발 봉사를 묵묵히 해내고 있다. 사진은 6월 8일 봉사모습.

치약·비누·기저귀 보내주세요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인덕노인복지회관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생필품. 치약이나 비누 같은 소모품과 어르신들 목욕시킨 후 피부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로션이나 오일도 항상 달린

감로회 보살들은 “아무래도 대소변을 잘 못 가리시는 어르신이 많아 기저귀도 필요한 것 같더라”고 살짝 귀띔했다. (02)385-8205

사찰 연등 및 전선(범당용) 불자기업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기업입니다.)

101 분리형
102 일체형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 ~ 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 ~ 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475

등간격

22cm, 30cm, 50cm, 1M, 2M, 3M, 5M, 10M 기타주분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사찰 전구 (정품)

- ▶ 불제대원 고추전구, 인지전구 (정품)
- ▶ 종류: 3W, 5W, 10W
- ▶ 일반 전구에 비하여 전구알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으며 필라멘트가 6배 (특 필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사찰용 (1W, 2W, 3W), 반 영구적인 특수전구(정품)

건전지용 초 방생, 탐들이 행사용 청사초롱 및 초롱 같이대

연등 (정품)

범당등(공단등), 영기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근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선 시공

초대형범종의 밀랍주조공법 개발 성공

- 에밀레종, 상원사종을 초월하는 초정밀 범종 제작 실현 -

聖鐘社가 지난 2004년 중소기업청이 전개하는 기술혁신 개발사업을 통해 본사 전매특허인 蜜蠟鑄造工法으로 10,000관 이상의 초대형 범종까지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범당종에서 입증된 성종사 작품들의 섬세한 문양과 부드러운 소리를 이제 大鐘에서도 만나보실수 있습니다. 聖鐘社는 최고의 범종 제작을 위해 항상 연구·노력하고 있습니다.

聖鐘社

- 본사 :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43 전화 02)733-6141 / 팩스 02)733-4840
- 공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함곡리 406-28 www.sungjongsas.co.kr
- 대표 : 범산 원광식 (인간문화재 제112호 · 대한민국 명장)

밀랍주조공법으로 제작된 경릉시민의 종 높이 3.15m, 직경 1.85m 중량 3000관

정교하고 아름다운 성종사 범종의 하대 문양!